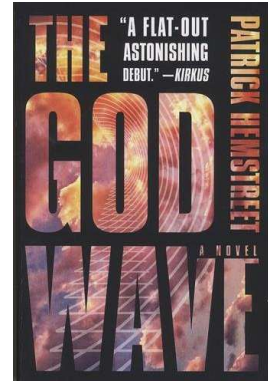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GOD WAVE
가제 : 신의 파동
저자 : Patrick Hemstreet
출판사: Harper Voyager
발행일: 2017년 1월 3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공상과학



- * 영화 제작 예정, 체코, 독일, 이탈리아 판권 계약 체결
- * “복합적인 인물, 다이내믹한 전개,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과학적인 사실까지 다 갖춘 폭발적인 스타일러”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Bone Labyrinth*』의 작가 제임스 롤린스
- * “훈신의 노력이 느껴지는 놀라운 데뷔작” - 「커커스 리뷰」

인간이 뇌 기능을 10 퍼센트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 숨어 있는 90 퍼센트의 잠재력을 고집어낼 수 있다면 인간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신경과학을 공부한 작가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과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특별한 소설을 완성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부위별로 운동을 하듯이 뇌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부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문제는 이 놀라운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이고, 양날의 검이 되어버린 뇌의 엄청난 기능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류를, 세상을 끌고 간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신경과학 교수 척 브렌튼은 뇌파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 심취해 있었다. 뇌전도 측정기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 가느다란 바늘이 오직 검사 받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파동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인데, 저 뇌파 신호를 증폭시키고 기계와 연결하지 않아도 스스로 원할 때,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기계도 작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손 하나 까딱 움직이지 않고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브렌튼은 인간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일들, 위험한 일들을 뇌파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했지만 신경과학 분야에서 천재라 일컬어지는 그도 해답은 찾을 수가 없었다. 고차원적인 수학적 지식, 퍼즐을 완성해줄 또 한 명의 천재가 필요했다.

MIT 수학교수인 맷 스트리그먼은 우연히 방송에 나온 브렌튼 교수의 인터뷰를 보자마자 만화처럼 머리에 전구가 떠올라 불이 번쩍 켜지는 기분을 느꼈다. 혼수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랑하는 아내 루시는 분명 뇌파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현 상태로는 깨어나기만을 기다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맷이 척과 손을 잡는다면, 뇌파 신호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루시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로봇개발에 참여했던 맷은 인터페이스 기술에도 통달한 사람이었다. 맷이 나타나면서 척의 연구는 껍막혀 있던 벽을 뛰어 넘어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공동 대표로 새 연구실의 문을 연 두 사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기계를 뇌파로 조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마이크, 새라, 미니, 랜펜, 팀 등 피험자를 자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실험을 이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뇌와 기계장치의 물리적인 연결 없이 ‘제타파’로 명명된 뇌파만으로 원하는 조작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같은 목표를 위해 달려온 척과 맷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나 달랐다. 척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맷은 때론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맷은 정체도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미국 정부 기관 ‘딥 쉴드’와 기술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아무도 가능할 수 없었던 뇌의 새로운 능력만큼 누구도 내다볼 수 없었던 파국이 시작된다.

일명 ‘알파’라 칭해진 뇌파 훈련생들의 뇌 기능이 신과 가까운 수준까지 급증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이제 인간이 새로운 진화 단계로 접어 들었다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개인의 욕심을 채울 최상의 도구라 여긴 사람들도 그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인간을 늘 괴롭히던 고통과 두려움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은 군부의 통제와 이윤에 눈이 뒤집힌 기업들의 욕망, 막강한 권력을 가진 브로커의 등장으로 구원이 아닌 파멸의 도구로 활용될 조짐을 보인다.

2권 『THE GOD PEAK』, 3권 『THE GODHEAD』까지 총 3부작으로 예정된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빠른 전개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가 끊임없이 흥미를 자아내는 공상과학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패트릭 험스트리트(Patrick Hemstreet)은 신경공학자, 기업가, 특허를 보유한 발명가, 해군 특수 의료관, 스탠드업 코미디, 배우, 그리고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NOT AFRAID

가제 : 두려워 마

저자 : Stephanie Bulens

출판사: (에이전시) Sobel Weber Associates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 오래 전 끔찍한 사고로 잃어버린 딸, 또 다른 아이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 위험과 맞서는 용기, 현재를 살며 과거를 이겨내는 과정,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해 나가려는 노력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

그대로 컸다면 이제 스물한 살이 되었을 멜로디는 이 세상에 없다. 그 나이에 멜로디를 낳고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었던 클레어는 여덟 살에 통통 불어버린 시신으로 발견된 딸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멜로디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보다,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멜로디의 아버지, 한때는 사랑했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사이먼이 고의로 딸을 죽게 만들었다고 믿는 클레어는 그가 또 다른 표적을 노리지 못하도록 직접 나서기로 결심한다. 자신과 이혼하고 새로 꾸린 가정에서 또 다시 사이먼의 딸이 된 아이, 엠마가 멜로디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사이먼과 이혼한 뒤 클레어는 예술품 경매 일도 그만 두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사이먼에게서 나온 돈은 위자료든 생활비든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경매장에서 작품 파는 일을 계속 하고 싶지도 않았다. 예술사를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익힌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을 살려,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프랑스어 과외를 해주는 일이 클레어의 새로운 직업이 되었다. 매일 낱아빠진 차를 몰고 과외를 하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동안, 클레어의 머릿속은 여덟 살을 무사히 넘겼다면, 멜로디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느라 늘 분주했다. 영락없는 말괄량이 십대의 모습으로 좋아하는 가수 포스터를 벽에 잔뜩 붙인 방에서 책에 푹 빠져 있는 모습, 클레어 자신이 멜로디를 가졌던 그 나이가 되어 엄마처럼, 첫 번째 아기와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는 모습과 함께 사이먼이 ‘사고’라 단언하는 문제의 그 날, 햇볕에 반짝이는 바닷물을 가리키며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던 어린 멜로디의 얼굴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간호사가 끌어주는 휠체어가 없으면 거동도 불편한 어느 나이 많은 학생은 클레어에게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해도 세상을 자네가 다 구할 수는 없어.”라고 이야기했지만, 클레어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세상을 다 구할 수는 없을지언정 사이먼의 두 번째 딸, 엠마는 자신이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클레어가 처음 사이먼을 만났을 때 그는 존경 받는 변호사였다. 영리하고 등직하기만 했던 그 남자는 이제 전혀 다른 이유로 신문 기사에 오르락 내리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사이먼의 고객

은 거액의 돈 세탁이 필요한 사람, 세금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 사이먼이 벌인 행각은 갱스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클레어는 자신이 엠마를 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위험에 노출될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사이먼이 거래해온 사람들 중에는 마흔두 살 프랑스어 과외선생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을 것이다. 클레어가 사이먼의 두 번째 아내, 샬롯에게 위험을 알리고자 전화를 걸었을 때도 사이먼은 곧바로 찾아와 으르렁거렸다. 멜로디의 죽음을 자신의 고의적 살인으로 보는 클레어를 정신병자 취급하던 사이먼은 그 경고를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지도 모른다.

그런데 클레어를 위협하는 사람이 사이먼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를 과외교사 이상으로 생각하며 클레어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병적인 집착을 하기 시작한 이란인, 클레어를 극진히 아끼고 챙겨주지만 정체를 숨기고 있는 갤러리 사장까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면서 클레어는 점점 코너에 몰린다. 가면으로 본심과 목적을 가린 사람들, 명확한 물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건 하는 냉혹한 사람들 속에서 맞서던 클레어는 결국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과연 클레어는 엠마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

수수께끼에 싸인 여러 인물들 속에서 옳은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클레어의 용기 있는 결단과 끈질긴 고투가 흥미진진하게 그려지는 심리 서스펜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스테파니 불렌스(Stephanie Bulens)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들과 협업을 해왔으며, 그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설을 쓰고,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번역을 하며 살고 있다.

제목 : SYMPATHY

가제 :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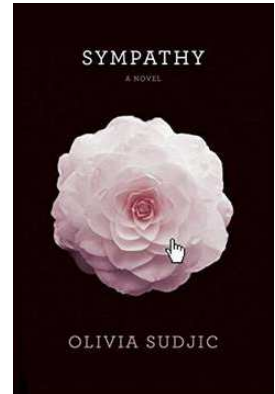
저자 : Olivia Sudjic

출판사: 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17년 4월 4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 미국 출판계약 수십만 달러 규모로 체결,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판권 계약 체결

* “굉장히 지적인 다크코미디. 디지털 시대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아름다우면서도 대담하게 포착했다.” - 「엘르」, ‘2017 주목해야 할 작가’ 선정 의견

* “현 시대를 제대로 묘사했다는 이유 말고도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글이 재미롭고 흡입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 「옵저버」, ‘2017 소설 분야의 뉴페이스’ 선정 의견

언팔로우. 당신은 더 이상 내 사생활을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없다는 미즈코의 경고가 앨리스의 눈 앞에 나타났다. 미즈코와 서로 팔로우 관계가 아닐 때도 트위터는 물론 다른 수많은 경로를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던 앨리스지만 이건 상황이 달랐다. 일방적으로 미즈코를 따라다니던 그때와 훨씬 더 가까웠다가 다시 원점으로, 혹은 아예 몰랐던 때보다 더 못한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즈코의 선언은 앨리스를 더 힘들게 했다. 잠시 망설이던 앨리스는 공개 콘텐츠 외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미즈코의 대문 사진을 하염없이 보다가 결국 ‘팔로우’를 다시 신청한다. ‘요청 중’으로 바뀐 상태메시지가 금방이라도 ‘팔로우’로 바뀔까 싶어, 그러고도 한참 동안 앨리스는 빈 화면만 응시했다. 대체 이들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2014년 봄, 앨리스는 런던에서 고향인 뉴욕으로 건너왔다. 어릴 때 떠난 도시로 스물세 살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해 여름, 마침내 미즈코 히무라와 만났다. 서른두 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던 미즈코는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과정을 가르치느라 학교와 가까운 모닝사이드 하이츠에 살고 있었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 쪽에서 지내던 앨리스는 6월, 그 사실을 알아낸 직후 바로 그 동네로 이사를 왔다. 마음만 먹으면 미즈코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무라 시큐리티’의 창립자고 어머니도 도쿄에서 사업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미즈코가 열여덟 살부터 뉴욕에서 살았으며 작가로 성공한 뒤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큰 즐거움을 얻고 있다는 것도 앨리스는 다 알고 있었다. 사실 앨리스가 뉴욕에 온 건 아픈 할머니를 돌봐드리기 위해서였지만, 이미 미국 땅을 밟기 전부터 온라인에서 시작된 집착은 그녀와 가까운 곳에 머무르면서 곧 본격적인 엿담과 미행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앨리스는 늘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양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뒤 소유욕도 많고 남을 마음대로 휘둘러야 직성이 풀리는 강한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앨리스는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남아 있는 기억은 별로 없었다. 아직 아기였을 때 일본에서 살았었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았지만 앨리스 자신이 기억하는 건 없었고, 급기야 앨리스는 기억을 하나 둘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남의 추억들, 다른 사람들의 기억들이 앨리스의 것이 되었다. 그러다 일본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작가, 미즈코 히무라를 알게 된 것이다. 앨리스는 미즈코의 소셜 미디어를 미친 듯이 탐독하고 그녀가 살아온 삶과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는 일에 몰입한다. 유독 미즈코에게 집착하게 된 이유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앨리스 자신의 인생과 닮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빠가 없다는 점, 한없이 자상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시다는 점, 태어난 나라와 성장한 나라가 다르다는 점, 엄마가 강압적이고 강하다는 점까지, 앨리스의 눈에는 미즈코와 자신이 피만 섞이지 않았을 뿐 꼭 쌍둥이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감정으로 미즈코와 현실에서 대면한 것부터, 이미 두 사람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미즈코와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발버둥치던 앨리스는 미즈코는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혼자 시작한 열정과 혼자 느낀 공통점이 현실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진과 영상에서 벗어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의 형태로 앨리스가 마주한 미즈코는 그 오랜 시간 상상했던 ‘인터넷 속 미즈코’와 영 달랐다. 그녀의 실제 삶과 소셜미디어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은 괴리가 엄청났고, 앨리스는 환상과 실제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 시작한다.

선망의 대상을 만나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비극에 치달는 관계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디지털 시대에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현 시대의 어두운 일면을 날카롭게 집어낸 이 소설은 그 어느 때보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만나고, 연락하는 일이 수월해졌지만 외롭고 고립된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아이러니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 소개>

올리비아 수직(Olivia Sudjic)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단편 소설로 ‘엘리자베스 2세 상(Queen Elizabeth II Prize)’을 수상한 데 이어, 교지에 출품한 소설 『Varsity』로 E.G. 하우드 잉글리쉬 상(E.G. Harwood English Prize)을 받고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졸업 후 「옵저버」, 「타임」에서 리뷰어로 활동 중이다.

제목 : AUTONOMOUS

가제 : 자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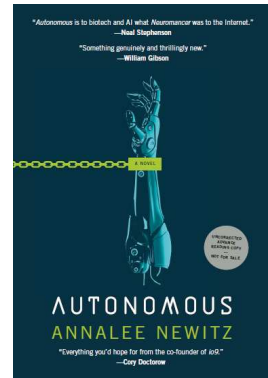
저자 : Annalee Newitz

출판사: Tor Books

발행일: 2017년 9월 19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공상과학



- * 일일 구독자수 **1,500**만 명에 이르는 최신기술 정보제공 사이트 '**Gizmodo**' 편집장 출신 작가의 참신하고 흥미진진한 **SF** 소설
- * “뉴로맨서(뇌와 신경체계를 인위로 조작하는 일)부터 인터넷까지,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소설” - 베스트셀러 「**The Baroque Cycle trilogy**」의 작가 닐 스티븐슨
- * “전혀 새로운 미래라는 드물고 흥미로운 소재를 놀라운 시각으로 그려낸 멋진 소설” - 「**Mr. Penumbra's 24-Hour Bookstore**」의 작가 로빈 슬로안

아무리 첨단기술이 발달하여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해도 기계에게 맡길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각양각색 학습 도구야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어도 결국 책상 앞에 앉아 특정 정보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활용하는 몫은 인간에게 있다. 2144년, 먼 미래에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수험생에게 ‘총명탕’과 홍삼을 챙겨 먹이듯 부모들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머리에 좋다는 것이라면 챙겨 먹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책상 앞에 앉은 상태로 공부를 멈추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긴 것이다. 미친 듯이 키보드를 연신 두들겨대며 타이핑을 하고, 또 하는 이 아이들은 몸을 일으키기는커녕 잠시도 손을 멈추거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다. 의사가 진정제 주사를 맞히고 세로토닌이나 과도한 정신적 집착을 해소하는 약을 투여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 상태로 의자와 책상에 고정되어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과 물도 먹지 않으니, 코에 억지로 연결한 튜브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였다. 더욱 희한한 것은 공부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이들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약물 중독자의 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그대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하루 이틀도 아닌, 몇 년 동안 약에 찌든 사람에게서나 나올 법한 패턴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지극히 정상이던 학생들의 뇌에서 관찰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원인도, 해결책도 밝혀지지 않아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더해 가는데, 책은 이 뉴스를 접하고 남들과 다른 두려움을 느낀다. 어쩌면 이 사태가, 책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도 모른다.

잠수함을 자가용 삼아 세계 곳곳을 누리는 책의 직업은 ‘해적’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제약회사들이 소위 ‘블록버스터 급’ 약을 만들어서 특허까지 얻고 독점할 때 어딘가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 하나도 얻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책은 제약계의 로빈후드가 되어, 저렴한 복제약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며 신나게 살고 있다. 공부에 중독된 아이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불법 제조되어 암시장

에서 거래된 약'이 원인인 것 같다는 정보가 흘러 나오자 책은 이 일이 최근에 입수한 약 '재퀴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업무 효율과 작업능력을 극대화시켜 생산성을 높여 준다는 이 약은 개발이 막 끝나 출시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여느 제약회사들이 그러하듯 재퀴티 개발업체도 직원들에게 먼저 이 약을 나누어주었고, 작은 알약 하나가 무슨 일이건 '진심으로 즐겁게, 빠른 속도로 해치우도록' 만든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시장에 풀리기만 하면 또 한 차례 거대한 인기를 몰고 올 것이 자명한 재퀴티는 책의 손에도 들어왔고 얼마 전 캐나다 캘거리에서 배포를 끝낸 상황이었다.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한다는 학생이 발견된 지역이나 증상으로 볼 때, 책은 자신이 공급한 재퀴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상한 증상의 원인은 재퀴티의 과잉 복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만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캐나다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피해자가 속출한다. 게다가 곳곳에서 눈 앞에 놓인 일과 과제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도로와 철로는 사고로 엉망이 되고 사회기반시설 전체가 통제를 벗어나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만다.

책은 군사용 로봇으로 만들어진 팔라딘과 함께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는 재퀴티 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전면전을 준비한다.

로봇의 인격과 감정을 다룬 판타지 미스터리 영화 '엑스 마키나'와 SF 장르에 정치적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된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의 작품이 결합된 듯한 독특한 소재의 소설은 새로운 디스토피아적 상상력과 숨막히는 추격전으로 독자의 눈을 사로잡는다. 사람도 한낱 물건처럼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자유란 어떤 의미이며, 자유를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복합적인 인물들이 기술의 파괴적 영향을 막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는 이처럼 자유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저자 소개>

애날리 뉴위츠(Annalee Newitz)는 미국에서 기자, 에디터, 소설가, 논픽션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SF 소설을 소개하는 블로그 'io9'를 만들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책임편집자로 일했다. 이후 「Gizmodo」에서 편집을 담당했고 현재는 기술 정보 제공 사이트 'Ars Technica'에서 기술 문화부 편집을 맡고 있다. MIT에서 과학저널리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공부를 마쳤으며 저서 『Scatter, Adapt and Remember: How Humans Will Survive a Mass Extinction』 (Doubleday)으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도서 상' 최종결승 후보에 올랐다. 단편 『Drones Don't Kill People』은 '2015 최고의 SF 소설' 모음집에 포함됐다.

NON- FICTION

제목 : ONCE UPON A TIME IN THE EAST

가제 : 옛날옛날 동쪽에서는

저자 : Xiaolu Guo

출판사: Chatto & Windus

발행일: 2017년 1월 2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이탈리아 판권 계약 체결

* “시선을 사로잡는 책. 작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대담하고, 분노하고, 야망 있는 사람이다” - 타임
(The Times)

늘 똑같은 일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은 일년에 한 번이라도 멀리 여행을 떠나길 바라지만, 그 짧은 여행도 돌아왔다는 아쉬움과 함께 ‘집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자의로, 혹은 타의로 여기가 내 고향, 내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탄탄한 안정감을 그리워하고 찾으려 애쓴다. 영국에서 소설가로, 영화감독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갓난아기 때부터 가난에 찌든 부모님 손에 여러 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던 저자는 꿈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도시로, 새로운 나라로 옮겨 다녔다. 방랑자, 떠돌이 신세가 싫었지만 고향을, 고국을 떠난 이유가 있었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은 무엇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흔 넘어 첫 아이를 낳고서야 오롯이 깨달았다. 영국의 어느 병원에서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태어난 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중국의 시골 고향마을에 여전히 살고 있는 엄마였다. 임신 사실조차 알리지 않을 정도로 연락조차 잘 하지 않은 엄마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집에 오라는 엄마의 애절한 부탁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곳, 저자는 그곳으로 향하며 지난날의 삶을 되새긴다.

1973년, 중국 문화대혁명이 끝나갈 무렵 외진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저자는 가난한 생활형편 때문에 아기가 없는 부부의 집으로 보내졌다. 산에서 염소를 키우며 살던 양부모 역시 아기에게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서, 결국 저자는 다시 동중국해를 바라보는 어촌 마을, 외조부의 집으로 보내졌다. 가끔 해변에는 낚선 외국 물건들이 떠내려와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로잡곤 했다. 어린 저자도 마찬가지여서, 태어나 한 번도 본적 없는 별의별 물건들을 보면서 저자는 자신이 아는 세상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어렵듯이 깨닫는다.

해지는 풍경을 화폭에 담기 위해 마을을 찾아온 예술 전공생들을 만나면서, 저자는 조금씩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을 떠나 북적대는 대도시, 베이징 영화학교에 입학한 저자는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중국의 면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꿈을 키워간다. 국가가 일선에 나서 예술을 검열하는 사회, 그 부당한 조치를 피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사람들 속에서 피운 저자의 간절한 열정은 영국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었고, 저자는 2002년 베이징을 떠났다.

저자는 이 다사다난했던 지난날과 중국의 현대사를 그 나라의 태생인 동시에 외부인이라는 특별한 사람의 눈으로 하나하나 조명한다. 창의력을 무참히 짓밟는 검열 체계 속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 좋은 글을 쓰고 싶어도 3류 드라마 대본 외에 돈벌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문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물에 빠뜨려 버리고 성추행, 성폭행이 일상인 분위기, 이 모든 고통을 안고 떠나간 곳에서 방황하며 뿌리를 그리워했던 삶,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 유려한 문장으로 감동을 안겨준다. 한 개인의 인생사에 국한되지 않는 삶의 지침서이자 중국의 근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목차>

과거는 외국과 같다

1부. 쉬탕: 동중국해 이야기

2부. 원링: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하는 삶

3부. 베이징: 삶의 소용돌이

4부. 유럽: 유목민의 땅

5부. 탄생과 죽음 앞에서

<저자 소개>

샤올루 구오(Xiaolu Guo)는 베이징 필름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여섯 권의 책을 낸 뒤 2002년 런던으로 갔다. 영어 번역서 『Village of Stone』이 인디펜던트 해외소설상(Independent Foreign Fiction Prize) 결선에 오르고 국제 IMPAC 더블린 문학상(International IMPAC Dublin Literary Award) 후보로 선정됐다. 영어로 쓴 첫 소설 『A Concise Chinese- English Dictionary for Lovers』는 오렌지상 소설 부문(Orange Prize for Fiction) 결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에 발표한 소설 『20 Fragments of a Ravenous Youth』는 맨 아시안 문학상(Man Asian Literary Prize) 수상 후보에 올랐다. 최근작인 『I Am China』는 베일리 여성소설상(Baileys Women's Prize for Fiction) 후보로 선정됐다. 영국과 독일을 오가며 'She, A Chinese' 등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목 : ELIMIN8

가제 : 제거 다이어트

저자 : William Cole

출판사: Avery/Penguin Random House

발행일: 2018년 가을

분량 : -

장르 : 건강



*** 사람마다 인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 굶고 제한하고 억누르는 건강법 대신 몸이 원하는 것을 찾아 자연스럽게 건강을 찾는 새로운 방법**

*** TV,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능성 의학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저자의 8단계 건강법**

특정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유독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어서 병원을 찾으면 주로 권하는 것이 ‘제거 다이어트’ 방법이다. 평소 먹던 음식을 전부 제외한 후 의심이 되는 음식, 평소 특히 많이 먹는 음식,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음식을 한 번에 하나씩 식단에 추가해서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길게는 수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 일종의 테스트를 바쁜 일상 속에서 제대로 해내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애매할 때도 많다. 저자는 주류 의학계가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민감한 반응을 유도하는 음식을 찾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기는 이러한 테스트가 힘들 뿐만 아니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단언한다. 늘 따라다니는 두통이나 복통이 정말 피자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밀, 글루텐, 젓당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진단을 받거나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 이에 저자는 비과학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테스트를 대체할 만한 대안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서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염증 반응을 대폭 줄일 수 있는 8주 프로그램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8가지 제거 프로그램’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에서는 퀴즈와 설문지를 통해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몸이 싫어하는 음식을 찾는다. 먹으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살을 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효과를 차단하는 음식, 원래 안 좋던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만성질환과 비만의 원인이 되는 최악의 식품을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퀴즈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음식 외에 인체가 싫어하는 여덟 가지 생활과 환경적 요소를 찾아낸다. 습관, 생활방식, 정서적인 특징과 심리적 경향에 관한 세부적인 진단을 통해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독소, 나쁜 습관,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심리적 요소를 찾아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음식과 그만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활, 환경적 문제 요소를 토대로 본격적인 ‘제거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단 8일 동안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과 습관을 하루에 하나씩 배제하여 건강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단순하면서도

도 강력한 과정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4단계는 8주간 앞 단계에서 배제한 8가지 음식, 습관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몸에 좋은 음식, 생활습관을 새로 도입하여 훨씬 더 활기찬 삶을 만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불필요한 체지방이 제거되어 체중이 감량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5단계에는 8주간 인체를 열심히 정화하고 건강을 개선시킨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주된 문제요소 외에 남아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제거한다.

유쾌하고 재미있게, 누구든 쉽게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친절하고 유익한 건강서다. 특히 어떤 변화로 인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긍정적인 신호인지 부정적인 신호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 개선, 기분 좋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모든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건강법이다.

<목차>

머리말

- 1장. 몸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
 - 2장. 몸이 좋아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
 - 3장. 감각을 되살리는 간단한 감각 추적법
 - 4장. 8단계 건강법
 - 5장. 해묵은 건 버려라
 - 6장. 되돌려야 할 여덟 가지: 새로운 것은 들여라
 - 7장. 만들어야 할 여덟 가지: 자신에게 꼭 맞는 음식과 생활계획을 찾아라
 - 8장. 힘을 쏟아야 할 여덟 가지: 식단, 생활습관, 정서적 관리
- 부록 1.

<저자 소개>

윌리엄 콜(William Cole)은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기능의학대학교에서 기능성 의학과 임상영양학을 공부했다. 이후 피츠버그 지역에서 전화와 웹캠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건강 개선에 관한 조언을 제공해 왔다. WTAE-TV, KDKA-TV, WPGH-FOX 등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했으며 여러 간행물에 건강에 관한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WAY SHE WEARS IT

가제 : 내가 만드는 패션

저자 : Dallas Shaw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7년 3월 28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패션



*** 전 세계 유명 브랜드 패션업체가 찾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그녀가 전하는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스타일 찾는 법**

*** 200 페이지가 넘는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공**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위 ‘패션 테러리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이 ‘패셔니스타’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 낸 것처럼 똑같은 옷, 똑같은 스타일에서 벗어나 개성 있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옷 잘 입는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렇게 되기란 결코 쉽지 않고,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개성을 표출하려는 열정이 어딘가 엇나갔을 때 패션에 테러를 일으켰다고 놀림을 당하곤 한다. 결국 그들이 큰 관심을 얻는 건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 과감한 스타일에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용감하게 나서서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샤넬, 돈나 카렌, 오스카르 데라렌타 등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함께 일하기를 갈망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십여 년을 바쁘게 뛰어다닌 저자는 패션 테러리스트가 될까 봐 가장 안전한 길만 택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성을 ‘제대로’ 표출하는 법을 알려준다. 무작정 유행하는 스타일을 복사하듯 따라 하거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분류하고 정의한 패션의 원칙을 불문율처럼 준수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옷, 추구하는 스타일을 자신의 체형과 상황에 맞게 구현하는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자가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패션의 유형이다. 클래식, 미니멀리즘, 보헤미안, 캐주얼과 같은 용어로 스타일을 구분하고 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창의성과 유연성을 싹둑 잘라내는 뿌리가 된다. 저자는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패션과 스타일의 유형에 일체 구애 받지 않고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옷 걱정도 밤을 지새우거나 쓸데없이 비싼 옷을 사거나 그래 놓고도 만족스럽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은 마음으로 마음 졸이느라 좋은 시간을 헛되이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자신만의 브랜드를 확고히 찾는 방법을 안내한다.

다른 사람의 옷이나 스타일을 보고 전체나 일부를 모방하는 것에만 익숙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표본’ 없이 쇼핑을 하거나 옷을 매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저자는 자신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고, ‘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떤 색, 어떤 디자인, 또는 어떤 환경에서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지 먼저 알아야 꼭 맞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패션은 단순히 옷 잘 입는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처

음 만난 사람의 첫인상은 단 7초 만에 결정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 저자는 이 짧은 시간에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겉으로 드러난 상대방의 개성이라고 이야기한다. 패션은 겉모습을 꾸미는 방식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으로 치장해도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어색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누구나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다고 외치기보다는 신중하게, 찬찬히 고민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멋진 스타일을 찾는 법을 조목조목 알려주는 알찬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1장. 이 책을 활용하는 법

2장. 옷장에서 만남시다

3장. 봄

4장. 여름

5장. 가을

6장. 겨울

<저자 소개>

댈러스 쇼(Dallas Shaw)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꼽힌다. 샤넬, DKNY, 케이트 스페이드, 랄프로렌, 메이블린 등과 함께 일하면서 아티스트로 활동해 왔다.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패션 블로그,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작품과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다.

제목: UNSTUCK

가제: 빠져 나오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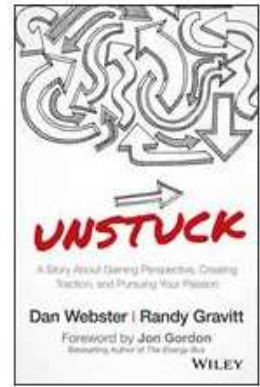
저자: Dan Webster, Randy Gravitt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7년 3월 20일

분량: 240 페이지

장르: 자기계발



- * “두 현명한 저자가 여러분이 열정과 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 **「One Word that Will Change Your Life」**의 저자, 지미 페이지
- *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이루고 걱정했던 문제를 대부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두 저자가 훌륭한 가이드 노트를 해줄 것이다.” - 베스트셀러 **「Chess Not Checkers」**의 저자 마크 밀러

어쩌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뜨거운 열정과 야심 만만한 목표를 세우고 뛰어든 일이 계획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아 좌절한 사람들도 많다. 가족, 형제,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도 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 나오고 싶지만 과감히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오도가도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상태, 벗어나고 싶지만 길을 찾을 수 없어 괴롭기만 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자 리더십 개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들, 업체들에게 나가는 길을 안내해온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미로 속에 갇혔을 때 침착하게 탈출구를 찾는 법을 설명한다. 도저히 가망 없고 흥미도 없는 직장이고 일인 걸 알면서도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을 때, 버리고 싶은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갈 길은 반드시 있다는 메시지만으로도 이미 큰 희망이 되지만 두 저자는 비상구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차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무조건 가속페달만 밟는다면 바퀴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다. 그렇다고 혼자 열심히 노력해봐야 해결도 안 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는 억울한 감정에 취해 덜 애쓰고 껌대기만 참여한다면 당장은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퀴를 흙에서 위로 끄집어 올리는 힘, 바닥에 주저 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견인력이다.

두 저자는 사회적인 지위나 객관적인 성공의 지표와 상관 없이 누구든 막다른 길에서 길을 잃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누구나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례, 같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 머무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책은 현실적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것, 남들이 이야기하는 자신이 아닌 진짜

나의 모습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것, 예의를 차리는 정도로만 임하는 것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 늘 안전한 길로만 가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도전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를 기를 것 등, 멀리 내다보고 자신이 갈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목차>

정지 표지판

고백

은행에서

낙담

전화

경고 표지판

살아있을 뿐인 삶

관점

응급실

데이지

가버린 것, 잃어버린 것

누구나 당겨주길 바란다 (이하 생략, 총 19장,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댄 웹스터(Dan Webster)는 1995년에 설립한 리더십 개발 업체 'Authentic Leadership, Inc'를 운영하면서 시카고 베네딕타인 대학교에서 리더십 박사과정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랜디 그라비트(Randy Gravitt)는 리더십 개발 업체 'INTEGREAT'의 설립자로 강연과 코칭을 이어왔다. Chick-fil-A, Inc., Pittsburgh Pirates Organization 등과 함께 일했다.

제목 : PHILOSOPHERS TAKE ON THE WORLD

가제 : 철학자들이 본 세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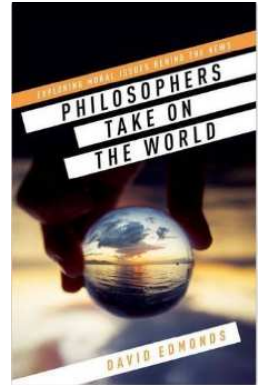
저자 : David Edmonds

출판사: OUP Oxford

발행일: 2016년 9월 2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철학



*** “사람들이 각자 독자적인 사상가가 되어,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철학의 영향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The Oxford Culture Review」**

*** 사회의 각종 이슈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법을 고민하는 실천윤리학을 흥미롭게 소개한 책**

뉴스 보기가 겁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소설에나 나올 법한 잔인하고, 흉악하고, 비도덕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소식이 수시로 충격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범죄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과연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절로 고개를 드는 문제들도 많다. 특정 연예인이나 자신이 응원하지 않는 스포츠 팀을 비난하는 문제, 각종 광고전화에 폭언을 일삼는 것은 물론이고 114 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콜 센터에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상담원을 괴롭히는 문제 등 세상이 어찌려고 이렇게 돌아가나 싶은 문제들이 수도룩하다. 한번쯤은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했음직한 이러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분야가 바로 실천윤리학이다.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옥스포드 대학교 우에히로 실천윤리학 센터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자는 동료 철학자들이 센터 블로그에 게시한 포스트 가운데 62편을 엄선하여 주제별로 이 책에 정리했다. 모두 국가나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서 대두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 글들로,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나가야 하는지 방향이 제시된다.

칼 막스는 철학의 핵심은 세상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학의 한 분야인 실천윤리학에서는 이 말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발언의 자유나 낙태 문제, 안락사, 전문 운동선수가 기량을 높이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행위와 같은 문제에 철학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철학과 윤리가 있다. 문제는 언론매체에서 사건이 알려지면 나름의 견해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속에 철학자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학계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철학자들과 사회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자 대중들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책을 완성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에히로 실천윤리학 센터의 블로그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뉴스를 장식한 각종 사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전하며 대중과 철학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저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던진 문제와 가장 큰 관심을 얻은 포스트를 골라 주제별로 묶었다.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대상에게 망신을 주는 행위,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생물학적인 부모가 둘이 아닌 셋인 아기와 가족의 구성, 기량을 높여주는 약의 사용 범위와 같은 최근 대두된 문제들도 광범위하게 다루어진다.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시각에서 잠시 벗어나 내가 속한 세상의 변화와 움직임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작은 것부터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만한 유익하고 알찬 철학서다.

<목차>

죄와 벌

1. 형법을 재고해야 할 때인가?
2. 처벌 강화: 기술은 종신형의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
3. 성적 가해의 수준

테러, 총, 전쟁

4. 총에 대한 권리에 담긴 문제
5. 맥마흔의 위험한(그리고 얼토당토않은) 생각 실험
6. 여행, 친구, 그리고 살인
7. 자살폭탄범은 용감하다?
8. 화학무기: 이중 잣대에 대한 방어
9. 흠친 예술품: 정의의 자화상

건강과 의학 / 약과 장기 종교와 자선활동 / 성, 성 평등, 성적지향성

스포츠 / 뇌 / 언어, 발언, 자유 / 악, 혐오, 수치, 무례함, 그리고 즐거움

동물 / 미래와 미래의 사람들 (총 6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데이비드 에드몬드(David Edmonds)는 옥스포드 대학교 우에히로 실천윤리센터의 선임연구원이다. BBC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비트겐슈타인은 왜(Wittgenstein's Poker)』 등 10권의 저서, 공저서가 25개국어로 번역됐다. 최근에 발표한 저서 『저 뚱뚱한 남자를 죽이시겠습니까?(Would You Kill the Fat Man)』(국내 2015년 출간)는 「뉴욕타임스」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됐다. 철학자 나이젤 워버튼(Nigel Warburton)과 함께 진행하는 철학 팟캐스트 ‘필로소피 바이트(Philosophy Bites, www.philosophybites.com)’는 다운로드수가 2,900만 건을 넘어서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제목 : FOREWARNED
가제 : 예측, 어디까지 가능한가
저자 : Paul Godwin
출판사: Biteback Publishing
발행일: -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인문



- * 세상을 예측하는 사람들, 누구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의사결과와 예측학 분야의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예측의 사회적 영향과 미래
- * 불확실성이 내포된 예측의 본질적 특징과 올바른 활용법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는 뉴스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대부분이 그런 의견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뿐 실현되리라 확신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국민 투표에서 탈퇴가 결정되어 전 세계 증시가 오락가락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무수한 학자들이 반대의 결과를 예견했지만 실제 결과는 영 달랐다. 미국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가 또 출마했다는 뉴스는 정치 소식보다 해외 토픽 내지는 우스개 소리처럼 가볍게 전해졌다. 그가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권자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그가 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예측을 뒤엎고 트럼프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더니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급기야 백악관에 정말로 입성했다. 전 세계의 예상이 뒤집어진 순간이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흔한 말처럼 “에이, 설마...”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요즘, 실시간으로 그러한 사태를 목격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상을 빗나간 충격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미래에 되돌아보면 지극히 일반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다. 두 차례나 이어진 세계대전도 현재 우리는 그 배경과 목적, 각국의 이권관계와 이데올로기 대립을 분석하며 어쩔 수 없는 결과라 이야기하지만 당시 사람들 중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소련의 붕괴도, 그로 인한 냉전의 종결도, 쿠바 미사일 사태까지 역사의 중요한 사건 대부분이 그랬다. 오랫동안 예측의 정확성과 의미, 가치를 연구해온 저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일 자체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얼마나 소용 없는 일인지 이 책에서 다양한 주제로 우리에게 설명한다. 개인적으로 가볍게 내놓는 예측부터 과학적으로 이러저러한 근거를 모아서 내놓은 예측까지, 때로는 심심풀이로 때로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큰 목표로 제시되는 예측이 자칫 여론을 조작하고 특정 이익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예측은 어떤 것이고 사기꾼이 던진 미끼는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예측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예측의 유익한 부분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다.

개인적인 욕심, 정치적인 의도가 슬며시 끼어들면 예측은 왜곡되기 십상이다. 세계적으로 명

망 있는 기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이 내놓은 예측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고, 어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저자는 악의적이거나 이기적인 요소 없이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한 예측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사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미래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예측 불가의 영역에 있다는 진실을 반드시 인정할 때 잘못된 예측으로 인한 부작용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누구나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를 위트 있게 전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머리말

- 1장. 신경세포에 관한 산더미 같은 이야기
- 2장. 판단에 대한 판단
- 3장. 씹어 삼키기엔 너무 많은 정보
- 4장. 전문가를 찾아라
- 5장. 집단의 힘
- 6장. 스스로에 대한 예측
- 7장. 사기꾼은 끝까지 찾아낸다!
- 8장. 숫자 하나가 던지는 유혹
- 9장.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
- 10장. 내 예측이 틀렸다고 말할 순 없다
- 11장. 알 수 없다는 사실, 아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 12장. 결론

<저자 소개>

폴 고드윈(Paul Godwin)은 영국 바스 대학교의 교수로 예측과 의사결정을 연구해 왔다. 2013년에는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국제 예측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Forecasters)’ 명예회원으로 활동했다.